
相對價格構造의 變化와 産業成長패턴

金 光 錫

▷ 目 次 ◁

- I. 序 論
- II. 主要産業別 相對價格構造의 變化趨勢
- III. 3 個産業群別 相對價格變化와 發展패턴
- IV. 相對價格構造變化와 成長패턴
- V. 要約 및 結論

I. 序 論

우리나라는 1960年代初 이후 급속한 經濟成長을 이룩했다. 즉, 1962~79년간 國民總生産(GNP)은 年平均 9.7%의 實質成長을 기록했으며 1人當 GNP도 1975年 不變價格기준으로 239美弗 수준에서 816弗로 3배 이상 증대해 왔다. 그런데 이같이 근 20년간이나 지속되어 온 高度成長은 물론 容易하게 計量化할 수 없는 여러가지 相互관련되는 經濟的, 政治的 및 社會的 諸要因에 의해서도 도움을 받았겠지만 주로 60年代初 이후에 채택된 對外指向的 工

業化戰略에 기인되는 바 크다고 判斷된다. 50年代에는 韓國動亂後의 復舊와 經濟安定化를 위해서 막대한 外援資金의 導入이 있었지만 國民總生産의 成長率은 年平均 4% 정도에 그쳤던 것이다.

이와 같이 韓國의 經濟成長은 50年代에 완만하게 시작되어 60年代와 70年代에 와서 加速化되었는데 이러한 成長은 南美諸國의 수준보다는 낮았으나 상당히 높고 慢性的인 인플레이션을 수반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GNP 「디플레이터」는 1955~79年間에 年平均 17% 정도씩 上昇했으며 같은 期間中 全國都賣物價指數에 의한 年平均 인플레이션은 약 13%로서 GNP 「디플레이터」에 의한 것보다는 좀 낮았다. 어쨌든 이렇게 長期間 지속된 인플레이션은 産業別 相對價格構造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런데 相對價格構造의 변화는 韓國에 있어서의 産業誘因體制와 關連되는 政府施策의 進化를 反映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本論文의 主目的은 1955~75年間에 있어서

의 우리나라 相對價格構造의 變化過程을 分析하고 또한 產業別 成長要因 및 成長패턴에 미치는 그 相對價格變化의 효과를 檢討코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產業聯關表 資料를 1968年 不變價格기준으로 換價하는 데 사용코자 수집된 細部產業別 國內生産者價格指數, 國際價格指數, 名目保護率 및 外換率指數 등의 資料를 사용코자 한다. 產業聯關表資料의 換價는 工業化要因의 分析和 관련되는 다른 研究를 위해서 筆者가 1955, 1963, 1970, 1973 및 1975年 등 選定된 年度에 대해서만 완료했으나 이러한 換價作業을 위해서 수집된 龐大한 相對價格 資料는 아직 體系的으로 分析된 바 없고 특히 產業成長패턴과 관련시켜 分析된 경우는 더욱 없었다.

그러나, 相對價格構造의 변화와 여러 實物數量變數의 변화간의 因果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事前的인 假說을 세우기는 容易치 않은 것 같다. 그것은 많은 경우 相對價格의 變化는 產業成長패턴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한 그 主要決定要因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 兩者간 因果關係의 本質은 아주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 序論에 뒤이은 第Ⅱ節에서는 1955~75年間 특히 그중에서도 1963~75년간의 高度成長期에 중점을 두어 相對價格構造의 變化過程을 論議한다. 第Ⅲ節에서는 價格과 實物數量간의 關係를 相關分析이나 回歸分析方法에 의한 統計的 檢定에 앞서 兩者간에 意義있는 關係를 調査키 위해서 統計表를 作成하여 檢討하고 있다. 그 다음 第Ⅳ節에서는 相對價格의 變化

와 產業成長패턴간의 關係를 相關分析方法을 통해서 分析하고 있으며, 끝으로 第Ⅴ節에서는 本論文의 主要結果를 요약하고 結論을 제시하고 있다.

Ⅱ. 主要產業別 相對價格 構造의 變化趨勢

우리는 韓國의 產業聯關表資料를 “假說的” 不變國內價格으로 換價하기 위해서 產業聯關表가 있는 해에 대해서는 細部產業別로 國內生産者價格指數, 海外價格指數와 名目保護率 등을 推計한 바 있다. 이러한 細部產業別 價格 및 名目保護率관계 資料를 主要產業別로 統合하면 <表 1>에 제시된 것과 같은 資料를 얻게 된다. 그런데 細部產業別 價格 및 名目保護率資料를 主要產業別로 統合하기 위해서는 各 該當年の 1968年 不變價格기준 產業別 內需用國內生産額에 加重值를 두어 加重平均하는 方法을 택해야 했다¹⁾.

어떻든 <表 1>에 제시된 資料에 의하면 1955~75年間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1次産業의 國內物價指數가 工產品價格指數보다 더 급속히 增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次産業에 대한 國內物價指數는 1955~75年間 약 20배 정도 上昇하여 年평균 16%의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同期間中 약 10배 정도 上昇한 製造業平均指數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이다. 그런데 1次産業部門內에서도 鑛業의 國內物價指數上昇率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때 同部門의 급격한 國內物價指數上昇은 주로 農林水産業部門의 급격한 國內價格上

1) 國內物價指數는 不變國內價格기준 內需用 國內生産額에 加重值를 두어 平均했으며 國際物價指數와 名目保護率은 不變國際價格기준 內需用國內生産額에 加重值를 두어 平均했음. 자세한 數式에 대해서는 金光錫(1978)을 참조하기 바람.

昇에 의해서 主導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製造業內에서는 機械類의 國內價格이 年평균 약 11% 정도밖에 上昇치 않아 다른 製造業部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食品加工業, 輕工業, 重工業 등은 모두 全製造業平均 上昇率과 비슷한 年 12% 정도의 國內價格 上昇率을 示顯하고 있다.

1次産業과 製造業部門을 統合한 全交易財部門에 대한 國內物價指數는 1955~75年間に 年평균 13.5%씩 上昇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全交易財部門의 國內物價指數 上昇率을 몇 개 期間別로 구분해 보면 1955~63年間과 1963~70年間の 年평균 上昇率은 각각 약 13%로서 비슷하나 同 上昇率은 1970~75年間に 16%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주로 1973~74年間の 國際的 資源 및 石油波動의 영향

으로 國內物價가 70年代에 들어와서 加速화된 것을 반영한다 하겠다.

이러한 國內生産者價格의 급속한 上昇動向에 비하여 海外物價指數는 全期間(1955~75)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특히 國際的石油波動이 있기 전인 1970年까지는 海外物價가 年평균 2% 미만의 安定勢를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海外物價指數도 70年代에 들어와서는 그 上昇率이 年평균 기준으로 9% 수준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全期間중의 年평균 上昇率은 근 3% 정도 되었다.

그런데 全期間中 主要産業別 海外物價動向을 보면 國內物價構造의 變化傾向과는 對照的으로 1次産業部門의 海外物價 上昇率이 工產品의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國內物價가 가장 급속히 올라간 農林水産業部

〈表 1〉 主要産業別 國內外 物價指數와 名目保護率의 動向(1955~75)

(指數는 1955=100 기준)

指數 및 年度	1 次 産 業			製 造 業					交易財 部 門 合 計
	農林· 水産業	鑛 業	計	食品加工	輕工業	重工業	機械類	計	
1. 國內 物 價 指 數									
195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63	302.8	275.3	301.1	248.1	226.3	186.6	207.9	222.0	259.6
1970	736.2	728.7	735.0	538.0	524.4	408.7	496.5	500.0	594.4
1975	2,033.3	1,711.5	2,005.6	1,057.7	957.7	972.8	745.8	997.3	1,253.0
〈年平均上昇率 1955~75〉	(16.3)	(15.3)	(16.2)	(12.5)	(12.0)	(12.0)	(10.6)	(12.2)	(13.5)
2. 海 外 物 價 指 數									
195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63	93.8	111.1	94.8	100.6	103.6	111.5	108.2	104.3	98.7
1970	103.3	152.9	105.6	115.9	119.2	125.6	113.3	118.8	111.5
1975	152.1	242.4	157.3	172.8	167.2	218.5	142.4	180.5	168.9
〈年平均上昇率 1955~75〉	(2.1)	(4.5)	(2.3)	(2.8)	(2.6)	(4.0)	(1.7)	(3.0)	(2.7)
3. 名 目 保 護 率 (+1)									
1955	1.656	2.025	1.675	1.920	2.181	2.980	2.838	2.254	1.927
1963	1.250	1.305	1.253	1.165	1.127	1.174	1.317	1.161	1.207
1970	1.264	1.056	1.251	0.953	1.044	1.020	1.476	1.040	1.109
1975	1.520	0.994	1.468	0.824	0.901	0.972	1.133	0.933	1.037
〈年平均上昇率 1955~75〉	(-0.4)	(-3.6)	(-0.7)	(-4.3)	(-4.5)	(-5.8)	(-4.7)	(-4.5)	(-3.1)

資料 : Kwang Suk Kim, "Deflation of Korea Input-Output Data into 1968 Constant Prices", KDI, 1978.

門의 경우 海外價格上昇率은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편에 속했던 것이다. 工產品內에 있어서는 機械類의 海外價格上昇率이 國內物價構造變化의 경우와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제일 낮았으나 그대신 重工業의 海外價格이 가장 높은 上昇率을 보였다.

國內生産者價格이 전반적으로 海外物價보다 급속하게 上昇했으나 産業別로 國內生産者價格이 海外生産者價格을 超過하는 比率을 나타내는 名目保護率(加 1)은 全期間 동안 대체로 낮아지는 趨勢를 나타냈다. 그 이유는 1955~75년간 國內生産者價格이 國內인플레이를 반영하여 海外價格에 비해서 급속히 上昇했으나 같은 期間中 外換率指數가 약 14배 정도 上昇하여 國內生産者價格의 上昇率을 相殺하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全交易財部門에 대한 平均名目保護率은 1955년의 93%라는 높은 수준에서 점차 낮아져 1970년에는 11%로 낮아지고 1975년까지는 4% 수준으로 낮아졌던 것이다. 그런데 1975년에 와서 全交易財에 대한 平均名目保護率이 특히 낮아진 것은 前年末頃の 圓貨平價切下로 그 해의 換率이 아주 현실적인 수준에 있었던 데 비해서 일부 國內生産者價格은 政府의 直接的인 價格統制로 인해서 人爲的으로 그 上昇이 억제된 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名目保護率의 전반적인 趨勢에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判斷된다.

全交易財에 대한 平均名目保護率이 대체로 점차 낮아지는 趨勢를 보였지만 1次産業部門 특히 그중에서도 農林水産業部門에 대한 平均

名目保護率은 그런 趨勢를 보여 주지 않는 것 같다. 즉, 農林水産業部門 名目保護率은 1955년의 66% 수준에서 1963년에는 25%로 낮아지고 1970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975년에는 다시 52% 수준으로 높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1次産業중에서도 鑛業部門에 대한 平均名目保護率은 工產品에 대한 것과 거의 같은 下降추세를 보였다. 全製造業에 대한 平均名目保護率은 1955~75年間に 무려 125% 수준에서 계속 낮아져서 1975년에는 -7%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製造業중에서도 機械類에 대한 名目保護率은 1975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13%를 나타냈다. 어떠한 工產品에 대한 平均的 名目保護率이 1975년에 負의 수준을 나타냈다는 것은 그해의 우리나라 工產品의 輸出競爭力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았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²⁾.

Ⅲ. 3個産業群別 相對價格 變化와 發展과 된

前節에서는 相對價格構造의 變化樣相을 主要産業別로 검토해 보았는데 여기서는 相對價格構造의 變化를 輸出産業, 輸入代替産業과 기타 內需産業과 같은 貿易指向特性別로 구분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相對價格構造變化와 發展과 된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論議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이 兩者間的 關係를 論議함에 있어서 本節에서는 먼저 統計的 集計表 등을 이용하여 敘述的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고, 다음 節에서는 이러한 初步的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하여 相關分析方法을 통해서 兩者

2) 사실 1975년은 國際原油波動的 영향으로 세계적인 不景氣가 지속되었으나 工產品이 大宗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商品輸出은 名目上 14%를 증가할 수 있었음.

〈表 2〉 全交易財部門의 貿易寄與度에 따른 産業分類(1955~63 ; 1963~75)

輸 出 産 業	輸 入 代 替 産 業	기 타 內 需 産 業
1955~63 (22個 交易財部門 水準)		
2. 鑛 業	3. 食 料 品	1. 農 林 水 産 業
17. 金屬 및 同 1次製品	4. 飲 料 品	5. 煙 草
	6. 織 維 絲 및 織 物	7. 織 維 製 品
	8. 製 材 및 木 製 品	9. 家 具
	10. 紙 類 및 紙 製 品	11. 印 刷 · 出 版
	14. 化 學 製 品	12. 製 革 및 革 製 品
	15. 石 油 · 石 炭 製 品	13. 工 具 製 品
	18. 金 屬 製 品	16. 非 金 屬 鑛 物 製 品
	20. 電 氣 機 械	19. 一 般 機 械
	22. 기 타 製 造 業	21. 輸 送 用 機 械
1963~75 (92個 交易財部門 水準)		
5. 工 藝 作 物	16. 搗 精 및 製 粉	1. 米 麥 類
8. 水 産 業	32. 麻 織 物	2. 기 타 穀 物
11. 非 金 屬 鑛 石	34. 染 色 整 理	3. 야 채
14. 과일 · 야 채 加 工	42. 필 프	4. 과 일
15. 水 産 加 工	49. 無 機 基 礎 化 學 製 品	6. 家 畜 및 養 蠶 業
18. 製 糖	50. 有 機 基 礎 化 學 製 品	7. 林 業
24. 綿 絲	57. 기 타 化 學 製 品	9. 石 炭
25. 生 絲	58. 化 學 肥 料	10. 金 屬 鑛 石
26. 毛 絲	59. 石 油 製 品	12. 原 鹽
28. 化 學 織 維 絲	66. 銑 鐵	13. 屠 殺, 肉 酪 農 品
29. 綿 織 物	71. 非 鐵 金 屬 地 金	17. 빵 및 과 자
30. 絹 織 物	75. 원동기 및 보일러	19. 조 미 료
31. 毛 織 物	77. 産 業 機 械	20. 기 타 食 料 品
33. 化 學 織 維 織 物	78. 一 般 産 業 機 械 및 장치	21. 酒 類
35. 메 리 야 之 製 品		22. 清 涼 飲 料
36. 로 프 및 漁 網		23. 煙 草
37. 衣 服 및 裝 身 品		27. 麻 絲
38. 기 타 織 維 製 品		43. 紙 類
39. 製 材 및 合 板		44. 紙 製 品
40. 木 製 品		45. 印 刷 · 出 版
41. 家 具		51. 火 藥 類
46. 製 革		52. 塗 料
47. 革 製 品		53. 醫 藥 品
48. 工 具 製 品		54. 비누 및 界 面 活 性 劑
61. 시 멘 트		55. 化 粧 品 및 치 약
62. 建 設 用 土 石 製 品		56. 農 藥
64. 도 자 기		60. 石 炭 製 品
65. 기 타 土 石 製 品		63. 유 리 製 品
68. 鐵 鋼 壓 延		67. 製 鋼
69. 鋼 管 및 鍍 金 鋼 材		76. 工 作 加 工 機 械

輸 出 產 業	輸 入 代 替 產 業	기 타 內 需 產 業
70. 鑄 鍛 鋼 品		84. 家 庭 用 電 氣 機 器
72. 非 鐵 金 屬 1 次 製 品		88. 自 動 車 및 修 理
73. 建 設 用 金 屬 製 品		
74. 기 타 金 屬 製 品		
79. 事 務 및 서 비 스 用 機 械		
80. 家 庭 用 機 械		
81. 機 械 一 般 部 品		
82. 電 氣 機 械 器 具		
83. 電 子 및 通 信 機 器		
85. 기 타 輕 電 氣 器		
86. 造 船 및 船 舶 修 理		
87. 鐵 道 車 輛		
89. 기 타 輸 送 用 機 械		
90. 精 密 機 械 및 光 學 器 具		
91. 合 成 樹 指 製 品		
92. 기 타 工 業 製 品		

資料 : 本 文 參 照 .

間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試圖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製造業과 全交易財部門을 輸出産業, 輸入代替産業과 기타 內需産業 등으로 分類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産業의 貿易指向 特性別 分類를 위해서 우리는 1955~63年間に 대해서는 29個部門 分類수준에서, 그리고 1963~75年間に 대해서는 118個部門 分類수준에서 不變部門別 比率方法(1次差異기준)에 의한 生産成長要因의 直接的 測定值를 계산했다³⁾. 그 계산결과에 따라 각 期間別로 輸出産業, 輸入代替産業과 기타 內需産業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 輸出産業 : 粗生産成長에 대한 輸出擴大의 相對的 寄與度가 10% 이상이고 그것이 輸入代替의 相對的 寄與度보다 크게 나타난 産業.

(2) 輸入代替産業 : 粗生産成長에 대한 輸入

代替의 相對的 寄與度가 10% 이상이고 그것이 輸出擴大의 寄與度보다 높게 나타난 産業.

(3) 기타 內需産業 : 輸出産業이나 輸入代替産業으로 分類되지 않는 다른 모든 産業.

이와 같은 生産成長에 대한 貿易寄與度の 차이에 따른 産業分類결과는 <表 2>에 제시되고 있다. 同表에 의하면 1955~63年間에는 22個의 全交易財部門中 2個만이 輸出産業으로 分類된 데 반해서 輸入代替産業과 기타 內需産業은 각각 8個와 12個에 이르렀다. 製造業內에서는 輸出産業이 단 한개뿐이고 나머지 8個와 11個는 각각 輸入代替産業과 기타 內需産業이었다. 1963~75년간에 있어서는 細分된 産業聯關表 資料가 可用하여 92個 交易財部門 分類수준에서 분류해 보면 輸出産業이 全交易財部門數의 절반이나 되는 46個나 되었으며 반대로 輸入代替産業은 상대적으로 적은 14個 밖에 안되었다. 그 나머지 32個 部門은 기타 內需産業에 해당했다.

3) 不變部門別 比率方法(1次差異 기준)에 의한 生産成長要因의 直接的 測定值의 計算方法에 관해서는 金光錫(1980), pp.47~49 참조.

同期間中 製造業內에 있어서는 輸出産業이 43個, 輸入代替産業이 14個, 그리고 기타 內需産業이 23個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産業分類도 앞에서 論議한 바와 같이 60年代初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成長이 輸入代替와 內需擴大에 의해서 主導되었으나 그 후는 輸出擴大와 內需擴大에 의해 主導되어 온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다음의 <表 3>과 <表 4>에서는 각각 1955~63년간과 1963~75년간에 있어서의 輸出産業, 輸入代替産業과 기타 內需産業 등의 相對價格構造의 변화와 그에 따른 實物生産, 輸出入 및 要素投入 등 發展패턴의 특성을 분석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表 3>의 1955~63년간에 대한 資料는 22個 交易財部門 分類수준에서 제시되고, 반면에 <表 4>의 1963~75年間 資料는 92個 交易財部門分類수준에서 분석·제시되고 있으므로 두 期間 資料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期間간의 發展패턴의 轉換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두 期間資料의 비교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表에는 製造業과 全交易財部門 資料를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의 論議를 보다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製造業內의 輸出産業, 輸入代替産業 및 기타 內需産業의 특징적 發展패턴만을 論議의 대상으로 하고 製造業뿐만 아니라 農林水産業까지도 포함한 全交易財部門에 대한 論議는 생략하기로 한다.

우리의 論議를 製造業內에 한정시켜 보면 두 表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기간에 있어서 輸出産業이라고 해서 그 國內價格의 上昇率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었다. 1955~63年間에는 20個의 製造業部門 중 單一部門인 金屬 및 同一次製品만이 輸出産業으로 분류되어 있어 代表性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어떻든 同

<表 3> 1955~63年間 輸出産業, 輸入代替産業 및 기타 內需産業의 特性分析

	製 造 業			全 交 易 財 部 門		
	輸 出 産 業	輸 入 代 替 産 業	기 타 內 需 産 業	輸 出 産 業	輸 入 代 替 産 業	기 타 內 需 産 業
1. 部 門 數 (個)	1	10	9	2	10	10
2. 國 內 價 格 指 數 (1955=100)	285.1	223.7	211.6	279.4	223.7	280.5
3. 國 際 價 格 指 數 (1955=100)	101.0	103.0	108.4	107.8	103.0	96.1
4. 名 目 保 護 率 (+1)						
1955	2.152	2.171	2.499	2.072	2.171	1.801
1963	1.311	1.147	1.178	1.307	1.147	1.233
變 化 率 (%)	-39.1	-47.2	-52.9	-36.9	-47.2	-31.5
5. 粗 生 産 增 加 構 成 (%)	6.6	61.8	31.6	7.9	42.4	49.7
6. 附 加 價 值 增 加 構 成 (%)	5.5	54.9	39.6	7.9	29.0	63.1
7. 輸 出 增 加 構 成 (%)	27.3	55.7	17.0	27.8	43.4	28.8
8. 輸 入 增 加 構 成 (%)	-202.7	554.7	-252.0	38.0	-94.1	156.1
9. 限 界 輸 出 率 ($\Delta E/\Delta X$)	0.249	0.055	0.033	0.189	0.055	0.031
10. 限 界 輸 入 率 ($\Delta M/\Delta Z$)	0.529	-0.354	0.185	0.397	-0.354	0.265
11. 限 界 附 加 價 值 率 ($\Delta VA/\Delta X$)	0.243	0.261	0.368	0.382	0.261	0.485

註: 1) 輸出産業, 輸入代替産業 및 기타 內需産業의 合計가 100%가 되도록 作成되어 있음.

2) 符號說明: E =輸出, X =粗生産, M =輸入, Z =總國內供給($X-E+M$), VA =附加價値, 但, Δ 는 1次差異를 나타냄.

資料: 1968年 不變國內價格에 의한 I-O 資料(本文 참조).

期間中 輸出産業의 國內價格指數는 185%나 增加하여 다른 産業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1963~75年間에는 輸出産業製品的의 國內價格上 昇率이 輸入代替産業에 대한 것보다는 낮았 으나 기타 內需産業에 대한 것보다는 상대적 으로 높았다. 그러므로 두 期間에 있어서 모두 기타 內需産業의 國內價格上 昇率이 輸出産業 과 輸入代替産業에 대한 것보다 가장 낮은 上 昇率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國內價格의 경우에는 기타 內需 産業이 가장 낮은 上 昇率을 보였으나 國際價 格指數의 경우를 보면 同期間中 輸出産業에 대한 것이 가장 安定勢를 보이고 있다. 기타

內需産業에 대한 國際價格指數는 1955~63年 間에는 다른 産業에 비해서 가장 높은 上 昇率 을 시현했으나 後期(1963~75)에 와서는 輸入 代替産業의 國際價格指數가 기타 內需産業에 대한 것보다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제 2 위 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前期와 後期에 있 어서 産業別 平均名目保護率이 많이 낮아지는 方向에서 변화되고 있다. 먼저 1955~63年間 에 대해서 보면 1955년에는 기타 內需産業의 平均名目保護率이 약 150%로서 가장 높았으 나 1963년에 와서는 18% 수준으로 떨어져서 상대적 으로 낮게 된 반면에 輸出産業의 名目

〈表 4〉 1963~75年間的 輸出産業, 輸入代替産業 및 기타 內需産業의 特性分析

	製 造 業			全 交 易 財 部 門		
	輸 出 産 業	輸 入 代 替 産 業	기 타 內 需 産 業	輸 出 産 業	輸 入 代 替 産 業	기 타 內 需 産 業
1. 部 門 數 (個)	43	14	23	46	14	32
2. 國內 價 格 指 數 (1963=100)	409.9	627.2	404.0	443.5	627.2	485.3
3. 國際 價 格 指 數 (1963=100)	160.7	199.6	167.6	166.1	199.6	167.3
4. 名 目 保 護 率 (÷1)						
1963	1.216	1.079	1.123	1.158	1.079	1.283
1975	0.995	1.003	0.821	0.999	1.003	1.080
變 化 率 (%)	-18.2	-7.0	-26.9	-13.8	-7.0	-12.7
5. 粗 生 産 增 加 構 成 (%)	58.8	16.1	25.1	55.5	14.5	30.0
6. 附 加 價 值 增 加 構 成 (%)	54.3	13.7	32.0	47.5	10.6	41.9
7. 輸 出 增 加 構 成 (%)	94.2	3.1	2.7	94.4	3.0	2.6
8. 輸 入 增 加 構 成 (%)	61.1	27.8	11.1	54.0	22.5	23.5
9. 就 業 者 增 加 構 成 (%)	74.9	9.3	15.8	84.2	9.2	6.6
10. 資 本 스 帑 增 加 構 成 (%)	60.4	24.0	15.6	56.8	19.4	23.8
11. 限 界 輸 出 率 ($\Delta E/\Delta X$)	0.412	0.049	0.028	0.421	0.049	0.021
12. 限 界 輸 入 率 ($\Delta M/\Delta Z$)	0.291	0.296	0.096	0.299	0.296	0.171
13. 限 界 附 加 價 值 率 ($\Delta VA/\Delta X$)	0.242	0.223	0.334	0.261	0.223	0.427
14. 勞 動 · 資 本 比 率 1963	3.817	1.877	2.896	5.295	1.877	11.463
1975	1.434	0.465	1.369	1.695	0.465	4.308
15. 限 界 勞 動 生 産 性 ($\Delta VA/\Delta L$)	0.583	1.186	1.631	0.579	1.186	6.535
16. 限 界 資 本 生 産 性 ($\Delta VA/\Delta K$)	0.674	0.429	1.540	0.655	0.429	1.382

註: 1) 輸出産業, 輸入代替産業 및 기타 內需産業의 合計가 100%가 되도록 作成되어 있음.

2) 符號說明: E=輸出, X=粗生産, M=輸入, Z=總國內供給(X-E+M), VA=附加價値, L= 就業者數, K=純資本스 帑. 但, Δ는 1次差異를 나타냄.

資料: 1968年 不變國內價格 기준에 의한 I-O 資料(本文 참조).

保護率은 31%로 低下되었으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率을 示顯했다. 1963~75年間の 경우에는 기타 內需産業의 名目保護率이 가장 급속히 하락하고 그 다음이 輸出産業의 것이었다. 그리하여 1975年 현재 기타 內需産業의 平均名目保護率은 -8%로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輸出産業에 대한 零의 保護率이었다. 輸入代替産業에 대한 名目保護率은 1963년에 다른 産業에 대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1975년에 와서는 그 절대적 수준은 낮으나 상대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生産成長에 대한 輸出寄與度나 輸入代替寄與度が 반드시 價格競争性이나 保護度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이것은 1963年만 하더라도 輸出産業의 平均名目保護率이 가장 높았고 또한 1975年の 기타內需産業의 平均名目保護率이 가장 낮았던 것을 붙여 짐작할 수 있다.

그 다음 貿易指向的 産業特性別 粗生産, 附加價値, 輸出, 輸入 등의 增加寄與度(構成比)를 보면 1955~63年間에는 대체로 輸出産業의 比重이 가장 낮고 輸入代替産業의 것이 가장 높았는데 後期에 와서는 輸出産業의 比重이 압도적으로 커진 반면에 輸入代替産業 比重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生産增加에 따르는 限界輸出比率을 검토해 보면 前期에는 輸入代替産業과 기타 內需産業의 限界輸出率이 5% 미만이고 輸出産業의 것은 25% 수준에 있었으나 後期에 와서는 다른 産業의 限界輸出率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輸出産業의 것은 기대했던 바와 같이 41%로 크게 증대했다.

産業別 國內供給增加에 따르는 限界輸入率의 경우에는 1955~63年間에 輸出産業의 것은 53%로서 가장 높은 반면에 輸入代替産業의

것은 -35% 수준이었는데 後期에 와서는 輸出産業과 輸入代替産業의 限界輸入率이 모두 약 30% 수준으로 균등화되고 있다. 그 대신 기타 內需産業의 限界輸入率은 前期의 19% 수준에서 後期에는 10%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輸出主導型成長이 지속된 後期에 있어서 輸出産業과 輸入代替産業의 成長이 거의 비슷하게 輸入誘發을 한 데 반해 기타 內需産業의 輸入誘發效果가 상대적으로 작았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1955~63年間에 대해서는 要素投入資料가 없으므로 1963~75年間에 대해서 産業別로 要素活用패턴을 分析해 보면 輸出産業의 就業者數增加와 純資本스톡增加가 全製造業增加中の 각각 약 75%와 60%를 차지하고 있다. 輸入代替産業은 全製造業 就業者增加數의 9%밖에 기여하지 못했으나 그 대신 資本스톡增加의 경우에는 24%를 점하고 있다. 기타 內需産業은 全製造業就業者增加의 경우나 資本스톡增加의 경우에 모두 약 15%의 寄與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輸入代替産業이 輸出産業이나 기타 內需産業에 비해서 상당히 資本集約的인 生産過程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表 4>에 제시된 직접적인 勞動/資本比率을 보면 1963~75年間에 있어서 모든 産業의 勞動集約도가 낮아지고 있으나 輸出産業의 勞動集約도가 그래도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기타 內需産業이었다. 예상대로 輸入代替産業의 勞動集約도가 가장 낮았는데 최근에 더욱 급속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限界勞動生産性은 역시 勞動集約度(또는 反對로 資本集約度)를 반영하여 輸出産業의 경우가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輸入代替産業의 경우였다. 限界資本生産性은 輸入代

替産業의 경우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輸出産業의 경우였다. 이것은 輸入代替産業의 처음부터 높았고 또한 더욱 높아진 資本集約도를 감안할 때 輸入代替産業의 資本活用이 상대적으로 非能率的이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그런데 기타 內需産業의 경우에는 勞動集約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限界勞動生産성과 限界資本生産성이 모두 다른 産業에 비해서 가장 높았다. 이것은 內需産業의 경우에는 대체로 製品 또는 産業特性으로 인해서 生産에 있어서 規模經濟效果를 다른 産業에서보다 높게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N. 相對價格構造變化와 成長패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55~75年間に 우리나라 交易財産業의 國內生産者價格은 우리의 主要貿易相對國의 生産者價格보다 근 7.5배정도 더 급속히 上昇했으나 同期間中 換率指數의 上昇이 그것을 上廻하여 우리나라 産業의 價格競爭성을 나타내는 名目保護率은 점차 떨어지는 趨勢를 보이기는 했다.

어떻든 우리나라 生産者價格이 海外에 類例가 드물 정도로 급격하게 上昇한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上昇을 평균적으로 볼 때는 國內의 超過需要狀態라든가 전반적인 인플레이趨勢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全交易財部門을 主要産業別로 分類해 본

결과에 의하면 主要産業別로 國內生産者價格 上昇率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主要産業內에서도 細分된 業種別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業種別 國內生産者價格 上昇率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回答을 구하기 위해서 80個 製造業部門 資料를 이용하여 몇 가지 回歸分析을 시도해 보았으며 비교적 意義가 있다고 생각되는 결과를 다음에 소개하기로 한다.

$$L_n(I_2^d/I_1^d) = 0.78 - 0.16L_n(V_2/L_2)/(V_1/L_1) + 0.55L_n(I_2^w/I_1^w) \dots\dots\dots(1-1)$$

(17.1)(-3.7)
(2.6)

期間 : 1963~70, $R^2 = 0.27$, $d = 1.6$

$$L_n(I_2^d/I_1^d) = 0.40 - 0.073L_n(V_2/L_2)/(V_1/L_1) + 0.74L_n(I_2^w/I_1^w) \dots\dots\dots(1-2)$$

(6.5)(-1.8)
(6.4)

期間 : 1970~75, $R^2 = 0.40$, $d = 2.1$

위의 두 回歸方程式에서 I_1^d 와 I_2^d 를 각각 第1期(始作年)와 第2期(最終年)의 國內生産者價格指數를, 그리고 I_1^w 와 I_2^w 는 마찬가지로 第1期과 第2期の 國際生産者價格指數를 각각 나타낸다. V 와 L 變數는 1968年 不變國內價格에 의한 附加價值額과 就業者數를 각각 표시한다. 이러한 回歸分析의 결과는 1963~70年間과 1970~75年間に 대한 80個의 製造業部門(118個部門分類기준) 資料를 사용하여 계산된 것인데 비교적 재미있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⁴⁾.

두 기간에 대한 回歸分析결과에서 回歸係數 밑에 괄호內 표시된 t -값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勞動生産性變數와 國際價格變數는 業種別 國內生産者價格의 變化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4) 1955~63년간에 대해서는 製造業部門分類가 20個 정도로 상당히 통합된 수준에서만 國內 및 國際價格資料를 사용할 수 있었을 뿐 勞動生産性 資料도 없었기 때문에 回歸分析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체로 統計的으로 有意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체로 우리나라의 製造業 業種別 國內生産者 價格의 上昇이 業種別 勞動生産性 向上과는 負의 關係가 있는 반면에 國際價格 上昇과는 正의 關係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 式에서 決定係數(R^2)가 27~40% 정도밖에 안되는 것은 역시 이러한 勞動生産性과 國際價格變數 이외에도 國內生産者價格 변화에 영향을 주는 要因이 많음을 설명한다 하겠다.

그러나 두 기간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1963~70年間과 1970~75年間에 國內生産者價格變化에 대한 勞動生産性變數의 回歸係數는 크게 낮아진 반면에 國際價格變數의 回歸係數

는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後期에 있어서는 勞動生産性 回歸係數의 統計的 有意度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前期에는 期間도 길고 하여 勞動生産性增加가 業種別 國內價格을 낮추는 데 크게 寄與했으나 後期에 와서는 原油를 포함한 國際資源價格 급등으로 인한 國際價格 上昇의 說明力이 강화된 반면에 勞動生産性增加로 인한 價格引下 효과는 아주 낮아진 것을 나타낸다 하겠다.

이것은 業種別 國內生産者價格變異의 상당한 부분이 國際價格變化와 國內勞動生産性的 변화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 金光錫(1980)⁵⁾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業種別 勞動生産性的의 增加는 生産(附加價值) 增加

〈表 5〉 相對價格構造變化와 成長패턴간의 相關係數

	國內生産者 價格의 上昇率	名目保護率의 上 昇 率	國際價格의 上 昇 率
〈1963~70〉			
1. 生産成長에 대한 輸出寄與度	0.07	0.08	0.04
2. 生産成長에 대한 輸入代替寄與度	-0.10	-0.14	0.04
3. 生産成長에 대한 內需擴大寄與度	0.04	0.12	-0.12
4. 生産增加率	-0.25*	-0.12	-0.19*
5. 輸出增加率	0.04	0.18	-0.21*
6. 輸入增加率	-0.10	-0.12	-0.03
7. 勞動/資本比率增加率	-0.07	-0.09	0.12
8. 勞動生産性增加率	-0.35*	-0.23*	-0.26*
〈1970~75〉			
1. 生産成長에 대한 輸出寄與度	0.10	0.09	0.02
2. 生産成長에 대한 輸入代替寄與度	-0.02	-0.11	-0.07
3. 生産成長에 대한 內需擴大寄與度	0.11	0.07	0.11
4. 生産增加率	-0.09	-0.13	0.09
5. 輸出增加率	-0.11	-0.11	-0.05
6. 輸入增加率	0.16	0.20*	-0.05
7. 勞動/資本比率增加率	-0.01	0.03	-0.06
8. 勞動生産性增加率	-0.05	0.04	-0.10

註: *表는 90% 이상의 信賴수준에서 統計的으로 有意한 것을 나타내며 그 나머지는 모두 統計的 有意性이 없음을 表示함.

資料: 80個 製造業部門資料를 이용하여 계산함.

5) 金光錫(1980), pp. 138~148 참조.

와 資本集約度의 增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業種別 國內生産者價格變異를 설명하는 다른 主要因인 國際價格의 변화는 國際的인 經濟與件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國內的인 經濟變數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는 外生的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外生的인 國際價格의 上昇은 國內生産者價格에 上昇壓력을 줄 것이나 정의상 業種別 名目保護率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정의상 業種別 名目保護率은 國內生産者價格이 높아짐에 따라 上昇할 것이나 반대로 國際價格과 우리나라의 換率指數가 높아짐에 따라 낮아질 것은 명백하다.

國內生産者價格과 國際生産者價格의 변화, 그리고 이 兩者에 따라 결정되는 名目保護率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工業成長패턴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인가? 이러한 國內外價格構造의 변화와 그에 따른 産業保護構造變化가 成長패턴에 미치는 효과는 사전적으로는 그리 명백치 않으므로 우리는 일련의 相關關係分析을 시도해 보았다. 主要結果는 <表 5>에 요약, 제시되고 있다.

同表에서는 80個 製造業部門資料를 가지고 1963~70年間과 1970~75年間에 있어서의 國內外生産者價格의 변화 및 그에 따른 名目保護率變化와 成長패턴을 나타내는 몇가지 指標간의 相關關係를 계산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1963~70年間과 그후期間에 있어서 生産成長에 대한 輸出寄與度, 輸入代替寄與度 및 內需擴大寄與도와 名目保護率의 變化間에는 統計的으로 아무런 有意한 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보통의 경우 成長에 대한 輸出寄與도와 적어도 名目保護率의 變化間에는 負의 關係가 있고 또한

輸入代替寄與도와 名目保護率의 變化間에는 正의 關係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위의 결과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名目保護率의 變化를 生産, 輸出 및 輸入의 增加率과 각각 相關시켜 보았다. 그 결과에 의하면 1963~70年間에 대한 生産增加率과 國內生産者價格上昇率 및 國際價格上昇率間에는 負의 關係가 있고 또 그 關係가 統計的으로 有意했다. 國內生産者價格上昇率과 生産增加率간의 有意한 負의 關係는 國內生産이 급속히 增大된 業種에서는 대체로 平均値보다 낮은 價格上昇을 수반해 온 것을 반영한다 하겠다. 1963~70年間的 國際價格上昇과 生産增加 및 輸出增加간의 負의 關係는 확실치는 않으나 우리나라의 輸出産業이 대부분 需要의 所得彈力性이 높고 또한 規模의 經濟效果도 비교적 큰 消費財産業에 해당되었다는 데 일부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즉, 이러한 産業은 長期的으로 規模經濟 利益을 올릴 수 있으므로 그 相對價格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75年間에 와서는 國內生産者價格上昇과 生産增加率간의 負의 關係나 또는 國際價格上昇과 國內生産增加 및 輸出增加간의 關係도 모두 統計的 有意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1970~75年間에 와서 國際資源 및 原油波動의 영향으로 國際價格의 變化패턴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또한 우리나라의 輸出構造도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國內外 價格上昇 및 名目保護率의 上昇과 輸入增加率간의 相關關係는 두 기간에 있어 한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統計的으로 有意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 예외적인 것은 1970~75年間に 輸入增加率과 名目保護率의 相關關係가 統計的 有意性を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名目保護率이 높아지면 國產과 輸入品간의 價格差異로 인해서 輸入需要가 增大할 것은 당연하나 1970~75年間に 와서야 그 관계가 統計的 有意성을 갖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輸入自由化幅이 어느 정도 擴大된 후에야 그런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國內外價格上昇 및 名目保護率變化와 勞動/資本比率增加率 및 勞動生産性增加率간의 相關關係를 계산해 보았는데 表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63~70年間に 있어서만 3個의 相對價格指標과 勞動生産性向上간에 有意한 負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63~70年간의 이런 관계는 勞動生産性增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生産增加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單位生産當 勞動費用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國內生産者價格을 낮춤으로써 名目保護率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단, 國際價格上昇과 勞動生産性增加간의 有意한 負의 관계는 우연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統計的으로 有意한 관계가 前期에만 성립되고 後期에는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앞서서도 이미 시사한 바와 같이 70年代에 들어와서 國內外價格構造의 변화는 勞動生産性的 上昇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주로 原油를 비롯한 資源價格의 급등에 따라서 결정된 바가 컸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表 6〉에서는 1963~75年間の 名目保護率과 輸入比重, 生産成長에 대한 輸出寄與度 및 輸

入代替寄與度간의 「스피어맨」의 順位相關係數(Spearman's coefficient of rank correlation)를 계산하여 보여주고 있다. 〈表 5〉에서의 결과는 모두 增加率로 표시된 각 變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各年の 名目保護率 수준과 해당년의 輸出 및 輸入比重간의 관계와 그리고 各年の 名目保護率수준과 해당년을 전후한 시기의 輸出寄與도와 輸入寄與度간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어쨌든 表에 제시한 順位相關係數에 의하면 1970年과 1975年の 名目保護率과 해당년의 輸入比重간에는 有意한 正의 관계가 있으나 名目保護率과 輸出比重間에 있어서는 1963年과 1970年에는 有意한 관계가 없었으며 1975년에 와서는 豫상의로 有意한 正의 관계를 나타냈다.

〈表 6〉 名目保護率과 成長에 대한 輸出 및 輸入代替寄與度間的 順位相關係數

	名目保護率(%)		
	1963	1970	1975
(1) 生産에 대한 輸出比重			
1963	0.11		
1970		0.04	
1975			0.34
(2) 總國內供給에 대한 輸入比重			
1963	0.11		
1970		0.55	
1975			0.38
(3) 生産成長에 대한 輸出寄與度			
1963~70	-0.04	0.0	
1970~75		0.23	0.33
(4) 生産成長에 대한 輸入代替寄與度			
1963~70	0.08	-0.01	
1970~75		0.10	0.02

註: 順位相關係數가 0.2를 상회하는 것만이 統計的으로 유의함.

資料: 80個 製造業部門 資料를 사용하여 계산함.

그런데 名目保護率과 輸入比重간의 有意한 正의 相關관계는 名目保護率이 國際價格을 초과하는 國內價格比率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겠다. 그러나 名目保護率과 輸出比重간의 관계가 有意치 못하고 또한 有意한 경우에도 예상외로 正의 關係를 나타내는 것은 앞에서의 名目保護率上昇과 輸出增加率 및 成長에 대한 輸出寄與度간에 關係가 統計的으로 有意치 못한 것과 함께 약간의 설명을 요한다고 판단된다. 그뿐 아니라 1970~75年間 生産成長에 대한 輸出寄與度도 1970年과 1975年의 名目保護率 수준과 有意한 正의 關係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필요로 한다.

어떻든 名目保護率과 輸出比重 또는 輸出寄與率간에 예상외의 關係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輸出이 단순히 價格競争性에 입각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그런 예상외의 關係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輸出支援制度和 그 중에서도 金利補助와 租稅上的 支援 등의 存在를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⁶⁾. 그리고 일부 輸出品目的 경우에는 과거에 政府가 輸出市場과 國內市場의 分割을 허용하여 低價輸出에서 오는 損失을 保護된 國內市場에서의 高價販賣로 메꾸도록 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몇개 年度에 名目保護率과 輸出比重 및 輸出寄與度간에 正의 關係가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名目保護率 수준과 輸入代替의 成長

寄與度간에는 아무런 有意한 關係가 없었다. 이것은 特定年에 있어서 名目保護率과 總供給에 대한 輸入比重간의 有意한 正의 關係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貿易保護障壁을 일방적으로 높임으로써 輸入代替를 강조한 政策을 취해 오지 않은 사실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70年代에 들어와서 重化學工業建設을 통한 輸入代替를 推進했으나 그 建設段階부터 輸入障壁을 높이지는 않았으며 또한 그러한 輸入代替가 名目保護率의 높이에 따라서 결정되지도 않았다. 사실 重化學工業製品은 종래에 國內投資促進을 위해서 輸入開放이 되어 왔고 또한 海外資本導入을 통한 輸入이 많았기 때문에 國內價格이 國際價格을 초과하는 比率가 높지 않은 것이 보통이었다.

V. 要約 및 結論

1950年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우리나라의 工業化를 통한 成長過程에는 비교적 높은 率의 인플레이션이 거의 지속적으로 수반되어 왔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또한 産業別 相對價格構造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다.

1955~75年間 全交易財部門 平均國內生産者價格指數는 연평균 13.5%씩 增加했으나 主要産業別로 國內生産者價格上昇率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1次產品에 대한 生産者價格指數가 製造業 平均指數보다 월등히 높은 上昇率을 보임으로써 國內物價上昇을 先導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급속히 上昇한 國內生産者價格指數와는 대조적으

6) 金光錫·L.E. 웨스트팔(1976)에 의하면 1968년의 部門別 實效保護率과 동년의 輸出比重 및 輸出의 成長寄與度간에는 有意 關係가 없었다. 그러나 附加價値를 직접 보조해 주는 金利補助와 直接稅 감면을 감안해서 輸出에 實効補助率을 계산해서 비교해 보면 그것은 輸出比重이나 輸出寄與度の 統計的으로 有意한 正의 關係가 있었음을 참고하기 바람(p.227 참조).

로 우리나라의 內需用國內生産額에 加重値를 두어 계산된 平均海外生産者價格指數는 全期間(1955~75) 중 상대적으로 낮은 연평균 3% 정도의 上昇率에 그쳤다. 價格構造面의 變化를 보더라도 國內物價構造의 變化傾向과는 대조적으로 1次産業部門의 海外物價上昇率이 工産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國內物價가 가장 급속하게 上昇한 農林水産業部門의 경우가 가장 낮은 편에 속했던 것이다.

國內生産者價格이 전반적으로 海外物價보다 급속하게 上昇했으나 産業別로 國內生産者價格이 海外生産者價格을 초과하는 比率을 나타내는 名目保護率은 全期間동안 대체로 낮아지는 趨勢를 보였다. 그 이유는 同期間中 外換率指數가 연평균 14.2% 정도 上昇하여 國內生産價格의 上昇을 相殺하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主要産業別 平均名目保護率은 1次産業 특히 그 중에서도 農林水産業部門의 경우를 예외로 하면 대체로 낮아지는 趨勢를 계속 보였고 따라서 1975년 현재 全交易財部門에 대한 平均名目保護率은 4%에 불과했다. 이는 우리나라 産業의 國際競爭力이 평균적으로 볼 때 계속 높아져 왔음을 反映한다 하겠다.

우리는 部門別 生産成長에 대한 輸出擴大, 輸入代替 및 內需擴大의 相對的 寄與度에 따라 製造業과 全交易財部門을 輸出産業, 輸入代替産業 및 기타 內需産業 등 세가지 産業群으로 분류했다. 그 다음 이 세가지 産業群別로 國內外價格構造와 名目保護率의 變化양상을 統計表를 통해서 검토해 봄으로써 各 産業群別 相對價格構造의 變化와 産業別 發展패턴간의 關係를 규명코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豫備的 試圖의 결과는 우리나라 産業發展패턴이 반드시

國內外價格競爭力이나 貿易保護度에 의해 서만 설명될 수 없음을 나타냈다. 製造業의 경우만을 예로 보더라도 예상과는 달리 輸出産業이라고 해서 그 國內價格上昇率이 상대적으로 낮지도 않고 따라서 同産業의 名目保護率도 다른 産業에 비해서 낮은 편도 아니었다.

이러한 결론은 國內外價格構造의 變化 및 그에 따른 名目保護構造變化와 産業成長패턴을 나타내는 몇가지 指標간에 相關關係分析을 試圖한 결과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우리는 보통의 경우 成長에 대한 輸出寄與度와 적어도 名目保護率간에는 負의 關係가 있고 또한 輸入代替寄與도와 名目保護率간에는 正의 關係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모든 觀察對象기간 중 이러한 諸變數간에는 統計的으로 有意한 關係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여러 變數간의 順位相關係數를 計算한 결과를 보더라도 名目保護率과 輸入比重간에는 대체로 有意한 正의 關係가 發見되었으나 名目保護率과 輸出比重간에는 統計的으로 有意한 關係가 없든가 有意한 경우에는 假設의로 正의 關係가 있음을 發見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輸出이 단순히 價格競爭力에 입각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反映한다고 보겠는데 이것은 輸出支援制度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복잡한 産業誘因制度에 기인되는 바 크다고 判斷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相對價格構造나 또는 名目保護率의 變化도 중요하나 그보다는 非價格措置를 포함하는 政府의 直·間接的인 支援이 産業成長패턴에 더 중요하게 作用해 온 것을 나타낸다고도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産業成長패턴의 變化要因을 實證的

으로 分析키 위해서는 名目保護率을 포함하는 相對價格構造의 變化만을 보아서는 안되며 적어도 過去에 金光錫·웨스트팔(1976)이 시도했던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직·간접적인 政府補助效果를 망라할 수 있는 産業別 實效保護 또는 補助率을 계산하여 檢討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의 分析에서 명백하게 된 것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細部産業別 國內生産者價格上昇率의 變異中 상당한 부분이 同産業製品的 國際價格變化(正의 效果)와 國內生産性向上(負의 效果) 등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國際價格의 變化는 우리나라의 경우 外生的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앞으로 國內産業의 價格競爭力을 높이기 위해서는 國內的으로 가능한 産業別 生産性向上 努力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相對價格構造의 變化와 産業成長패턴간에 어떤 因果關係를 糾明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좀 무리한 試圖가 아니었던가 의심해 본다. 비록 非價格措置를 통한 政府의 직·간접적인 介入이 없다 하더라도 產

業成長패턴 또는 그와 관련된 資源配分이 相對價格構造의 變化에 의해서만 影響을 받는다고 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 한 나라의 資源配分 및 成長패턴을 결정하는 要因에는 相對價格構造變化 이외에도 그 나라의 自然資源賦存條件, 궁극적으로 消費者選好와 관련되는 需要條件과 産業技術問題를 포함하는 여러 供給條件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經濟規模가 크게 확대되고 또한 構造的으로도 복잡화된 우리나라의 現段階에서는 相對價格構造變化와 資源配分 및 成長패턴간의 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될 수 있도록 資源配分이 보다 中立的인 市場價格機構를 통해서 결정되는 範圍가 크게 擴大될 것이 요청되고 있다. 非價格措置를 통한 産業部門에 대한 政府介入을 축소하고 誘因體制를 단순화함으로써 兩者간의 관계가 쉽게 分析·把握될 수 있는 與件이 마련되지 않는 한 政府政策의 效率性은 고사하고 그 精確한 效果測定조차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參 考 文 獻 ◁

-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0.
 金光錫·L. 웨스트팔,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9, 1976.
 金光錫, 『韓國工業化패턴과 그 要因』,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36, 1980.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80.
 ———, 『韓國의 國民所得』, 1978.
 Chenery, Hollis B. and M. Syrquin, *Patterns of Development: 1950-1970*,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Hong, Wontack,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Seoul: KDI Press, 1979.
 Kim, Kwang Suk, "Deflation of Korean Input-Output Data into 1968 Constant Prices", Seoul: KDI, mimeo, 1978.
 Kim, Kwang Suk and Michael Roemer, *Growth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 The Republic of Korea 1945-1975*, Cambridge: Harvard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1979.
- Kubo, Yuji, "Sources of Growth Decomposition Equations", a note prepared for the World Bank, July 1978.
- Salter, W.E.G., *Productivity and Technical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 Syrquin, Moshe, "Sources of Industrial Growth and Change: An Alternative Measure," World Bank, 1976.
- Westphal, Larry E. and Kwang Suk Kim, *Industrial Policy and Development in Korea*,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263, Washington, D.C., 1977.
- Westphal, Larry E. and Kyu Soo Kim, "KDI Input-Output Data Bank", Seoul: KDI (rev.), 1977.